

예비유아교사의 메타인지, 감성지능이 인성개발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마지순, 이선채*
원광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

The Effect of Meta cognition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Character Development Efficacy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Ji-Sun Ma, Sun-Chai Lee*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의 메타인지, 감성지능과 인성개발효능감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A대학의 유아교육과 학생 218명이다. 검사도구는 메타인지, 감성지능, 인성개발효능감에 대한 내용으로 예비유아교사의 자기보고식으로 완성되었다. 자료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 기술통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 단계적 회귀분석이 실시되었다. 연구결과는 첫째, 예비유아교사의 메타인지, 감성지능, 인성개발효능감은 보통이상으로 나타났다. 둘째, 메타인지와 인성개발 효능감은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적 인성개발효능감이 개인적 인성개발효능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하위영역에서는 인지지식 중 선언적지식이 높으면 인성개발효능감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인지조절영역 중 평가가 높으면 인성개발효능감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감성지능은 인성개발효능감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성지능이 높으면 일반적 인성개발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감성지능의 하위영역에서는 타인감성인식이 높으면 인성개발효능감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고, 다음은 자기감성인식, 감성조절, 감성활용 순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예비유아교사의 인성개발효능감에는 감성지능 중 타인감성인식이 가장 높은 영향력이 있으며, 자기감성인식, 메타인지 중 오류수정, 그 다음은 감성지능 중 감성활용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유아교사의 직전교육과정에서 인성개발효능감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증가시키는 기회가 되었고, 예비유아교사의 메타인지와 감성지능에 대하여 고려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metacognition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character development efficacy.

The subjects were 218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at university. A questionnaire, which required self-reporting by these teachers, was us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ir metacognition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character development efficacy.

The data were analyzed by Pearson's correlation and stepwise regression. The study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metacognition and emotional intelligence exerted an effect on the character development efficacy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the metacognition and character development efficacy of the teachers. Third,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the emotional intelligence and character development efficacy of the teachers. Fourth, emotional comprehension of others, emotional comprehension of own, error correction, and emotional activity were meaningful and influential variables on the teachers' self-leadership. These results increased the perception for the development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 curriculum about character development efficacy, metacognition and emotional intelligence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Keywords : Character Development Efficacy, Meta cognition, Emotional Intelligence,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

이 논문은 2016년도 원광보건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서 수행됨.

*Corresponding Author : Sunchai Lee(Wonkwang Health Sciences Univ.)

Tel: +82-63-840-1294 email: dltjsco@wu.ac.kr

Received October 27, 2016

Revised (1st November 23, 2016, 2nd December 29, 2016)

Accepted January 6, 2017

Published January 31, 2017

1. 서론

현대사회의 다양한 변화는 과거에 비해 물질 만능주의, 도덕적 가치관의 부재개인주의가 팽배해지는 역기능적인 모습이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유아를 둔 학부모에게 자녀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성교육임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점점 맞벌이 부부가 갈수록 증가하고, 유아들은 교육기관에 맡겨지는 연령이 낮아지고 그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현실에서 학부모의 인식만큼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1]. 이로 인해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인성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좀 더 강조되어지고 있으며 인성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유아기는 다른 발달시기보다 교사에 대한 모델링이 유아의 학습뿐 아니라 인성부문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인성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유아교사의 자질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된다[2].

유아교사는 유아의 하루생활 중 부모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며, 교육기관에서 인성교육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사의 사고양식, 성품과 도덕성, 교사효능감 등의 개인적 특성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2]. 교사의 질이 교육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교육기관에서 인성교육이 질적이고 내실 있는 인성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무엇보다 교사의 자질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아교육현장에서 유아인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Berkowitz와 Grych[3]은 인성교육을 위한 경험적 토대의 부족, 교사들의 인성교육에 대한 신념과 교수전략 및 정보부족, 운영자들의 불충분한 교육경험 등으로 인해 효과적인 유아 인성교육을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인성개발효능감은 유아 인성교육을 통해 유아의 인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스스로 믿는 정도에 대한 효능감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예비교사교육과정 중에 인성개발효능감을 형성할 수 있다면 유아교사가 되었을 때 긍정적인 유아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3].

유아들의 인성발달에 있어 유아교사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인성교육자로서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교사교육자들은 인성교육을 수행하기 위해서 교사들을 준비시켜야 한다는

것에는 찬성하고 있다(Johes, Ryan, & Bohlin[4]. 즉 예비유아교사 때 인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에 합의하고 있다.

메타인지는 1976년 Flavell에 의해 처음 사용된 용어로, 인지에 대한 인지, 사고에 대한 사고 또는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아는 것, 자기 자신의 인지를 반성의 대상으로 하는 것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된다[4].

메타인지는 인지활동과 관련하여 주어진 문제를 보다 쉽고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지식을 의미하는 메타인지지식과 문제해결과정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며 인지과정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메타인지조절로 구성되어있다[5]. 메타인지능력은 학업뿐 아니라 대인관계 등 삶의 전반에 걸쳐 다양한 심리적 구인과 관련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실제로 메타인지가 높은 집단은 메타인지가 낮은 집단에 비해 사회적 문제해결기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9], 예비유아교사의 메타인지가 높은 경우 셀프리더십도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9]에 비추어볼 때 예비유아교사의 메타인지는 인성개발효능감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진다.

유아교사들은 유아와의 관계에서 부정적 정서를 그대로 표현하기 보다는 긍정적인 정서에 맞게 자신의 정서를 조절해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사의 감성지능은 중요하다[10]. 이는 교육대상인 유아의 개별적 차이가 크고 발달적으로 미성숙한 유아들의 발달과 성장을 돕기 위해서 유아의 요구와 감정을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감성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잘 인지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며,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이끌 수 있는 능력이다[11]. 그러므로 유아의 전인적인 성장과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감성적인 측면의 도외시는 교사의 역할수행에 있어서 학습자인 유아와 교육을 편협하게 규정짓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12]. 따라서 최근에는 교사가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지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교사의 감성적인 측면이 더 중요한 능력으로 강조하게 되었다. 즉, 유아의 감성을 키우고 그 자체로 살아있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하는 교사의 감성지능은 매우 중요하며[13] 유아의 인성발달과도 연계됨을 유추할 수 있다.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유아인성교육의 중요변인은 교사이므로 유아인성교육 관련영역은 유아교사의 전문성영역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유아기 인성함양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교사로서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라는 신념인 유아교사의 인성개발효능감은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14].

또한 유아교사의 다양한 역할이 요구되는 교육환경에서 효과적인 인성교육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기주도적인 능력이 필요하고, 전문성 있는 교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사고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메타인지 능력이 요구된다[9]. 이와 더불어 타인의 감정에 인지하고 이를 인간관계에 활용할 수 있는 감성지능은 유아교사의 인성개발효능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 할 수 있다.

유아교육과 관련된 인성개발효능감은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국형 12성품교육을 실천한 유아교육기관의 교사인식 및 인성개발효능감에 대한 연구[15], 유아교사의 자아개념과 인성개발효능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2], 유아교사의 사고양식과 인성개발효능감이 교직원신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있다[4].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인성개발효능감 관련연구는 유교적 가치, 교직관 및 인성교수효능감과 교직원신도와의 관계를 밝힌 연구가 있을 뿐[14] 예비유아교사의 인성개발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변인을 밝히려는 연구는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의 메타인지, 감성지능과 인성개발효능감과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예비유아교사의 인성개발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 및 유아교사교육에서 인성개발효능감 관련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예비유아교사의 메타인지, 감성지능, 인성개발효능감은 어떠한가?
2. 예비유아교사의 메타인지와 인성개발효능감의 관계는 어떠한가?
3. 예비유아교사의 감성지능과 인성개발효능감의 관계는 어떠한가?
4. 예비유아교사의 메타인지, 감성지능은 인성개발효능감에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5년 11월 10일부터 12월 2일까지 A전

문대학교의 유아교육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 연구이다. 질문지는 1학년 68명, 2학년 80명, 3학년 84명 총 230부를 배부하여 무응답과 성실하게 답을 하지 않은 질문지를 제외하고 난 나머지 218부(95%)를 분석하였다.

2.2 연구도구

2.2.1 메타인지

본 연구에서 예비유아교사의 메타인지는 Schraw와 Dennison[16]이 청소년과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개발한 MAI(Metacognitive Awareness Inventory)를 신예진[17]이 번안하여 사용한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MAI에서는 인지에 대한 지식영역과 인지조절영역을 총 52문항이다. 메타인지 영역은 인지에 대한 지식영역이 선언적 지식(8문항), 과정적 지식(4문항), 조건적 지식(5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인지조절영역은 계획(7문항), 정보관리(10문항), 모니터링(7문항), 오류수정(5문항), 평가(6문항)로 구성되었으며 5점 척도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메타인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는 전체 *Cronbach's a* .89으로 나타났다.

2.2.2 감성지능

예비유아교사의 감성지능 검사도구는 Wong과 Law[18]의 감성지능 척도(WLEIS)를 정현우(2007)가 번안한 도구[19]이며, 7점 척도로 측정하게 되어 있는 것을 5점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WLEIS는 자기감성인식, 타인감성인식, 감성조절 및 감성활용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4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감성지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 .77이다.

2.2.3 인성개발효능감

본 검사는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Milson[20]이 제작한 CDEBI(The Character Development Efficacy Belief Instrument) 질문지를 번역하여 사용한 허서영[5]의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최일선[2]은 본 검사도구를 유아교사에게 적용하여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도구는 일반적 인성개발효능감과 개인적 인성개발효능감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 12문항씩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으면 인성개발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76으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연구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변인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예비유아교사의 메타인지, 감성지능, 인성개발효능감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메타인지, 감성지능, 인성개발효능감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예비유아교사의 메타인지, 감성지능이 인성개발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 알아보기 위한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변량팽창계수(VIF)와 Durbin-Watson 값을 구하였다. 변량팽창계수(VIF)는 1.61 ~ 4.23 사이로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Durbin-Watson 값은 2.115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준값 잔차의 독립성을 가정하는 2에 근접하므로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는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예비유아교사의 인성개발효능감을 종속변인으로 놓고 메타인지, 감성지능의 하위요인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4. 결과 및 해석

4.1 예비유아교사의 메타인지, 감성지능 및 인성개발 효능감 수준

예비유아교사의 메타인지, 감성지능 및 인성개발효능감의 기술통계 분석, 메타인지 전체($M=3.52$, $SD=3.05$)는 보통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영역인 조건적 지식($M=3.66$, $SD=2.52$), 선언적 지식($M=3.66$, $SD=3.50$), 과정적 지식($M=3.55$, $SD=2.00$), 인지에 대한 지식($M=3.63$, $SD=2.67$)과 오류수정($M=3.69$, $SD=2.74$), 정보관리($M=3.63$, $SD=4.52$), 계획($M=3.57$, $SD=3.43$) 인지조절($M=3.61$, $SD=3.43$)으로 나타났다. 예비유아교사의 감성지능은 전체($M=3.73$, $SD=2.54$)가 보통이상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인 자기감성인식($M=3.90$, $SD=2.34$) 타인감성인식($M=3.88$, $SD=2.58$), 감성활용($M=3.62$

$SD=2.69$), 감성조절($M=3.52$, $SD=2.56$) 역시 보통이상으로 나타났다. 예비유아교사의 인성개발효능감의 전체($M=3.88$, $SD=6.60$)는 보통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영역인 일반적 인성개발효능감($M=3.91$, $SD=5.82$), 개인적인 인성개발효능감($M=3.84$, $SD=7.38$)에서 모두 보통이상으로 나타났다 [Table 1].

Table 1.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Meta cognition, Emotional Intelligent and Character Development Efficacy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N=218)

Variable		Subvariable	M	SD
Meta cognition	knowledge of cognition	declarative knowledge	3.64	3.50
		procedural knowledge	3.55	2.00
		conditional knowledge	3.66	2.52
		subtotal	3.63	2.67
	regulation of cognition	planning	3.57	3.43
		information management	3.63	4.52
		monitoring	3.57	3.47
		debugging	3.69	2.74
		evaluation	3.61	2.98
		subtotal	3.61	3.43
		total	3.62	3.05
Character Development Efficacy	common teacher efficacy	3.91	5.82	
	personal teacher efficacy	3.84	7.38	
	total	3.88	6.60	
Emotional Intelligence	self emotional awareness	3.90	2.34	
	other people emotional awareness	3.88	2.58	
	emotional regulation	3.52	2.56	
	emotional application	3.62	2.69	
	total	3.73	2.54	

위의 결과로 볼 때, 예비유아교사의 메타인지, 감성지능, 인성개발효능감은 보통보다 다소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4.2 예비유아교사의 메타인지와 인성개발효능감의 관계

예비유아교사의 메타인지와 인성개발효능감의 상관관계는 예비유아교사의 메타인지 전체와 인성개발효능감 전체가 높은 정적인 상관이 나타났다($r=.528$, $p<.001$).

특히, 일반적 인성개발효능감($r=.490, p<.001$). 개인적 인성개발효능감($r=.468, p<.001$)보다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타인지의 하위영역에서는 인지조절 영역의 평가($r=.482, p<.001$), 오류수정($r=.479, p<.001$), 정보관리($r=.464, p<.001$), 계획($r=.431, p<.001$), 모니터링($r=.423, p<.001$)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인지지식에서는 선언적지식($r=.452, p<.001$), 조건적지식($r=.439, p<.001$), 과정적지식($r=.339, p<.001$)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Table 2].

Table 2. The Relationship of Meta cognition and Character Development Efficacy of Preservice Teacher's Leadership (N=218)

		Character Development Efficacy			
		common teacher efficacy	personal teacher efficacy	total	
Me ta co gn iti on	knowledge of conition	declarative knowledge	.408***	.410***	.452***
		procedural knowledge	.315***	.339***	.363***
		conditional knowledge	.426***	.375***	.439***
	regulation of cognition	planning	.378***	.399***	.431***
		information management	.473***	.379***	.464***
		monitoring	.371***	.392***	.423***
		debugging	.415***	.448***	.479***
		evaluation	.477***	.404***	.482***
	total	.490***	.468***	.528***	

*** $p<.001$

위의 결과로 볼 때, 예비유아교사의 메타인지가 높으면 인성개발효능감이 높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일반적 인성개발효능감이 개인적 인성개발효능감보다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하위영역에서는 인지지식 중 선언적지식이 높으면 인성개발효능감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인지조절영역 중 평가가 높으면 인성개발효능감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4.3 예비유아교사의 감성지능과 인성개발효능감과의 관계

예비유아교사의 감성지능과 인성개발효능감의 전체 상관관계는 높은 정적인 상관이 나타났다($r=.680,$

$p<.001$). 특히 일반적 인성개발효능감($r=.679, p<.001$)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성지능의 하위영역에서는 타인감성인식($r=.579, p<.001$), 자기감성인식($r=.533, p<.001$), 감정조절($r=.509, p<.001$), 감성활용($r=.484, p<.001$)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Table 3].

Table 3. The Relationship of Meta cognition and Emotional Intelligent of Preservice Teacher's (N=218)

	Character Development Efficacy		
	common teacher efficacy	personal teacher efficacy	total
self emotional awareness	.630***	.366***	.533***
other people emotional awareness	.586***	.476***	.579***
emotional regulation	.478***	.447***	.509***
emotional application	.413***	.459***	.484***
total	.676***	.568***	.680***

*** $p<.001$

위의 결과로 볼 때, 감성지능이 높으면 인성개발효능감이 높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일반적 인성개발효능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감성지능의 하위영역에서는 타인감성인식이 높으면 인성개발효능감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고, 다음은 자기감성인식, 감정조절, 감성활용 순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4.4 예비유아교사의 메타인지와 감성지능이 인성개발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예비유아교사의 인성개발효능감에는 타인감성인식이 33.5%의 영향력을 미치고($F=108.985, p<.001$), 자기감성인식이 6.1%를 추가하고($F=70.363, p<.001$), 메타인지 중 오류수정이 5.1%를 추가하고($F=57.549, p<.001$), 감성지능 중 감성활용이 2.8%를 추가하여 총 47.5%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F=48.098, p<.001$) 나타났다 [Table 4].

Table 4. The Relationship of Meta cognition and Character Development Efficacy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N=218)

	B	β	t	R ²	Adj.R ²	F
(constant)	51.465		12.756***			
other people emotional awareness	2.677	.579	10.440***	.335	.332	108.985***
(constant)	39.840		8.657***			
other people emotional awareness	1.882	.407	6.293***	.396	.390	70.363***
self emotional awareness	1.534	.300	4.629***			
(constant)	28.277		5.517***			
other people emotional awareness	1.350	.292	4.341***	.447	.439	57.549***
self emotional awareness	1.486	.290	4.674***			
debugging	1.116	.256	4.437***			
(constant)	25.192		4.950***			
other people emotional awareness	1.053	.228	3.330***	.475	.465	48.098***
self emotional awareness	1.412	.276	4.534***			
debugging	.911	.209	3.600***			
emotional application	.874	.197	3.373***			

***p<.001

위의 결과로 볼 때, 예비유아교사의 인성개발효능감에는 감성지능 중 타인감성인식이 가장 높은 영향력이 있으며, 자기감성인식, 메타인지 중 오류수정, 그 다음은 감성지능 중 감성활동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논의

본 연구목적은 예비유아교사의 메타인지, 감성지능과 인성개발효능감과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유아교사교육에서 예비유아교사의 인성개발효능감을 증진시키고 예비교사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이에 따른 결론 및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유아교사의 메타인지, 감성지능, 인성개발효능감은 보통보다 다소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예비유아교사의 메타인지가 보통이상으로 도출되었던 연구결과[9]와 일치하며, 감성지능이 보통보다 높은 결과는 대학생의 감성지능이 보통이상으로 결과가 도출된 연구결과[21]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인성개발효능감이 보통보다 높게 도출되었던 최일선의 연구결과[2]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예비유아교사의 메타인지가 높으면 인성개발효능감이 높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일반적 인성개발효능감이 개인적 인성개발효능감보다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하위영역에서는 인지지식 중 선언적지식이 높으면 인성개발효능감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인지조절영역 중 평가가 높으면 인성개발효능감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연구결과는 메타인지가 높은 집단은 메타인지가 낮은 집단에 비해 사회적 문제해결기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2]와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메타인지는 주어진 상황에 맞게 자신의 요구를 조절하고 보다 적응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적절한 접근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으로 인성개발효능감과 밀접한 관련이 증명해 주는 결과이다.

셋째, 감성지능이 높으면 인성개발효능감이 높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일반적 인성개발효능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감성지능의 하위영역에서는 타인감성인식이 높으면 인성개발효능감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고, 다음은 자기감성인식, 감성조절, 감성활용 순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의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유아와 정서적, 언어적, 행동적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하였다는 연구[10]와 연계하여 볼 때 감성지능이 높은 교사가 유아들에게 긍정적인 인성교육을 제공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즉, 본 연구는 이러한 예측을 증명해 주며, 감성지능이 인성개발효능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넷째, 예비유아교사의 인성개발효능감에는 감성지능 중 타인감성인식이 가장 높은 영향력이 있으며, 자기감성인식, 메타인지 중 오류수정, 그 다음은 감성지능 중 감성활동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결과는 감성조절과 감성활용이 보육교사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감성지능이 자기 자신을 동기화시키고 고유한 잠재성과 목적을 추구하게 하여 자신이 가지

고 있는 가치관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살아가는 그 무엇으로 변신시켜준다는 이주언의 입장[22]을 볼 때 윤리적, 가치판단이 요구되는 인성개발효능감은 감성지능의 영향이 많을 수 밖에 없음을 증명해주는 실증적인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예비교사의 인성개발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할 시에는 예비유아교사의 메타인지와 감성지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의 지각에 기초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메타인지, 감성지능, 인성개발효능감에 대한 양적연구결과를 통해 알아보았지만. 후속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의 직전교육과정에서 출현하는 인성개발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메타인지나 감성지능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현상학적 연구를 통하여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해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특정대학교의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되어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연구에서는 여러 대학교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예비유아교사의 인성개발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메타인지나 감성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직전교육을 통해 예비유아교사의 인성개발효능감 향상에 대한 효과를 검증해 보는 추후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의 메타인지, 감성지능, 인성개발효능감의 관계를 알아보고, 메타인지와 감성지능이 인성개발효능감에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유아교사의 직전교육과정에서 인성개발효능감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기회가 되고, 예비유아교사의 메타인지와 감성지능에 대하여 고려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References

- [1] Y. J. Kim, Influence of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 on Learning Motivation and Academic Self-concep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M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011
- [2] I. S. Choi, The Relationship between Kindergarten Teachers' Self-Concept and the Character Development Efficacy,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Education Welfare*, vol. 13, no. 2, pp. 219-237, 2009
- [3] Berkowitz, M. W. & Grych, J. H., Early character development and education. *Early Education & Development*, vol. 11, pp. 55-72, 2000. DOI: https://doi.org/10.1207/s1556693Seed1101_4
- [4] J. K. Kun, J. Y. Lee, The Effect of the Thinking Styles and Character Development Efficacy of Childhood Educational Teachers on Their Commitment to Teaching,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4. pp. 1905-1915. 2014. DOI: <http://doi.org/10.5762/KAIS.2014.15.4.1905>
- [5] S. Y. Hu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 Development Efficacy and Commitment to teaching, Dept. of Elementary Education. MS these Ewha Womans University, 2007.
- [6] Johes, E. N., Ryan, K., & Bohlin, K. (1998). Character education and teacher and teacher education: How are prospective teachers being prepared to foster good character in students? *Action in Teacher Education*, Vol no. 20, pp. 11-28, 1998.
- [7] S. S. Kim, C. O. Park, The effect of moral dilemma group discussions of the development metacognition in young childre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27, pp.5-25, 2007.
- [8] H. D. Lee, Meta cognition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 Conceptual Approach and Educational Implication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 9, no. 2, pp. 59-74, 2005.
- [9] S. Y. Joung, J. Y. Kim, Relationships Between Pre-service Kindergarten Teacher's Metacognition and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1. no. 3. pp. 205-223, 2011.
- [10] S. K. Kwon, S. Y. Yeon, The Impact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Social Background on Interaction between Teacher and Early Childhood, *The Korean Society For Child Education And Care*, vol. 15, no. 4, pp. 1-18, 2015.
- [11] Goleman D. 1998. Working with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ntam Books, 1998
- [12] E. O. Ha, The applicability of emotional competence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staff development,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28, no. 2, 217-242, 2008. DOI: <https://doi.org/10.18023/kjece.2008.28.2.010>
- [13] K. S. Kim, W. Y. Park, The Effects of Child Care Teachers' Emotional Intelligence on Their Emotional Competence and Self-Efficacy,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vol. 71 pp. 289-308, 2012.
- [14] S. H. Namgung & H.J. Kim.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nfucian Values, Views of Teaching, Character Teaching Efficacy and Commitment to Teaching for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20, no. 4, pp. 237-256, 2013.
- [15] K. H. Heo, Y. S. Lee, The Perception and Character Development Efficacy of 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in Korea 12 Character education, *The CHARACTER journal*, pp. 109-141, 2011.

- [16] Schraw, G., & Dennison, R. S.(1994). Assessing Meta cognitive Awareness. *Contemporary Education Psychology*, 19, 460-475, 1994.
DOI: <https://doi.org/10.1006/ceps.1994.1033>
- [17] Y. J. Shin, The implementation and effectiveness of blended learning in college chemistry laboratory courses. Department of Science Education PHD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10
- [18] Wong, Chi-sun., & Law, S. L., The Effects of leader and follower emotional intelligence on performance and attitude: an exploratory study, *The Leadership Quarterly*, Vol 13, pp. 243-274, 2002.
DOI: [https://doi.org/10.1016/S1048-9843\(02\)00099-1](https://doi.org/10.1016/S1048-9843(02)00099-1)
- [19] H. W. Jung,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PHD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2007.
- [20] Milson, A. J. Teacher efficacy and character education.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pp. 1-32. April 0-14 Seattle, WA, 2001.
- [21] D. W. Jeong. A Study on the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emotional intelligence and personality traits on english learning flow. PHD Thesis Kyong nam university, 2016.
- [22] J. W. Lee, The Effects of Child care center Teachers' Personality, Emotional Intelligence and Teachers' Efficacy on the Occupational stress. MS Thesis Suwon University, 2014.

이 선 채(Sun-Chai Lee)

[종신회원]



- 1982년 2월 : 원광대학교 음악과 석사
- 1983년 2월 ~ 현재 : 원광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아동음악, 기악, 반주법

마 지 순(Ji-Sun Ma)

[종신회원]



- 2001년 2월 :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교육학석사)
- 2004년 2월 : 원광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문학박사)
- 2009년 2월 ~ 2013년 2월 : 거제대학 유아교육과 교수
- 2013년 2월 ~ 현재 : 원광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유아교사론, 유아교육과정, 영유아 발달